

경제 및 고용 동향

◆ 2010년 2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2009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10년 2월 광공업 생산은 기타운송장비, 석유정제 등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9.1% 증가하였고, 서비스업 생산은 교육, 운수, 보건·사회복지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53.2%), 자동차(32.5%), 기계장비(28.9%)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기타운송장비(-11.2%), 석유정제(-5.0%), 담배(-22.3%)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2월 제조업 가동률지수는 반도체 및 부품(32.0%), 자동차(18.7%), 1차 금속(20.9%)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생산은 예술·스포츠·여가, 숙박·음식점업 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각각 -6.2%, -0.9%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서비스업(14.1%), 운수(13.9%), 보건·사회복지(11.6%), 부동산·임대(11.0%),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6.4%)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2월 소비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와 승용차, 컴퓨터·통신기기 등 내구재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2.9% 증가하였고, 설비투자는 18.0% 증가함.

- 소비자재판매액지수는 승용차, 컴퓨터·통신기기 등 내구재에서 전년동월대비 21.3%, 음식료품, 화장품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8					2009					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p	2월	2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0.6	8.9	5.6	11.3	3.0	-15.5	-6.2	4.3	16.2	-0.8	-10.2	19.1(3.6)
	제조업 생산	10.7	9.3	5.5	-12.1	3.0	-16.4	-6.7	4.4	16.8	-0.9	-10.4	19.8(3.9)
	출하	8.9	6.6	5.3	-10.1	2.4	-14.7	-5.9	2.1	12.8	-1.7	-9.6	14.3(0.4)
	내수	5.3	1.7	1.7	-11.0	-0.7	-16.3	-6.6	3.4	12.3	-1.8	-9.9	12.6(-5.3)
	수출	14.3	14.3	10.3	-8.8	7.1	-12.4	-4.7	0.4	13.3	-1.7	-9.1	16.4(-9.3)
	서비스업 생산	6.4	4.8	3.2	-0.4	3.4	-0.4	1.6	1.9	3.7	2.0	-0.1	7.1(3.1)
소비	소비재 판매	3.9	2.9	1.4	-4.2	1.0	-4.9	1.6	2.8	10.8	2.6	-6.0	12.9(1.8)
투자	설비투자	-0.9	-2.7	5.3	-13.4	-4.3	-17.7	-13.4	-10.0	10.2	-8.0	-12.0	18.0(7.8)
물가		3.8	4.8	5.5	4.5	4.7	3.9	2.8	2.0	2.4	2.8	3.9	2.3(0.3)

주 : p는 잠정치임. ()안은 전기(월)비를 나타냄.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12.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는 3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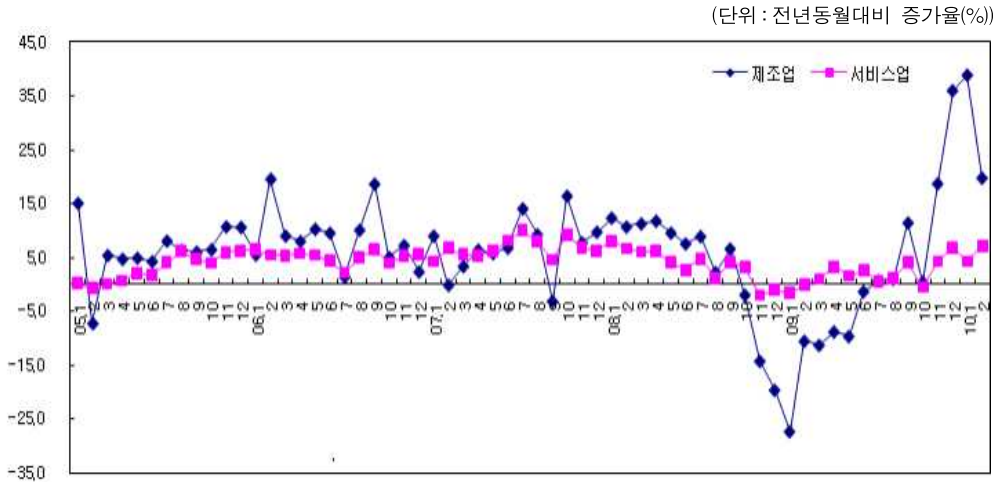
등 비내구재에서 12.4%, 오락·취미·경기용품, 의복 등 준내구재에서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설비투자는 반도체장비, 건설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8.0% 증가하였으며, 건설기성은 공중별로는 건축공사,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문의 실적감소로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도소매업판매액지수 등 8대 지표가 모두 증가하여 전월대비 0.7%p 상승하여 2009년 3월 이후 12개월 동안 상승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구인구직비율, 자본재수입액 등 3개 지표가 증가하였으나 건설수주액,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등 6대 지표가 감소하여 전월대비 1.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3% 상승(생활물가지수 2.9% 상승)

○ 2010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0(2005=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3% 상승하였고, 3월 생활물가지수는 116.5로 나타나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3.4%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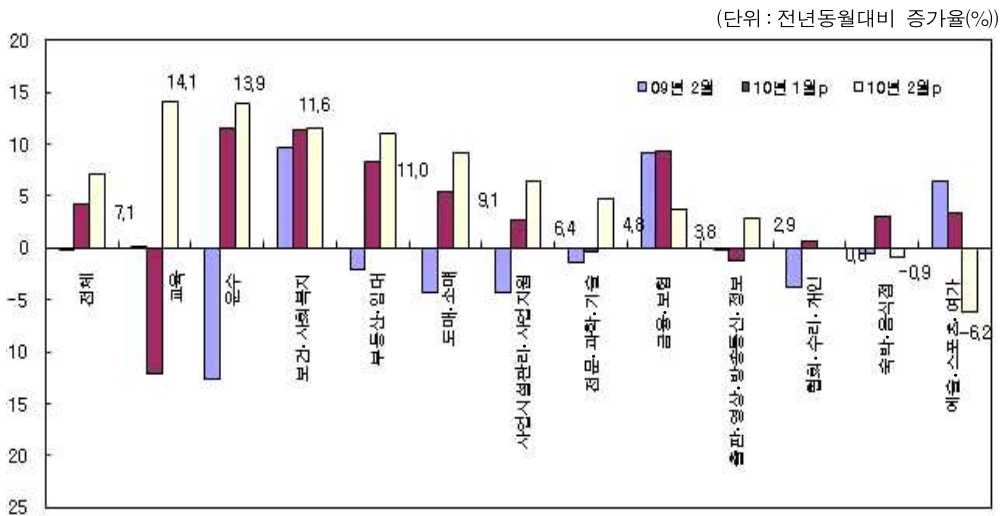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주 :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 통계청, 『2010년 2월 산업활동동향』, 2010. 3.

- 통신(-0.8%) 부문만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서 전월대비 상승함. 식료품·비주류음료, 교육(1.2%), 교통(0.9%), 가구집기·가사용품(0.3%), 외식·숙박, 주거 및 수도·광열, 기타잡비(0.1%) 등을 중심으로 상승함.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김복순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고용률 감소세 지속

- 2010년 2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4,03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9천 명(1.6%)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192천 명으로 218천 명(1.6%) 증가하였고, 여성은 9,843명으로 151천 명(1.6%) 증가함.
- 2010년 2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59.5%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성(71.8%)이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여성(47.7%)은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음.
- 2010년 2월 중 고용률은 56.6%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남성의 고용률은 68.2%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5.4%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하였음(그림 3 참조).
- 2010년 2월 중 취업자는 22,86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5천 명(0.5%)이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3,48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6천 명(0.9%)이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9,38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 명(0.1%)이 증가함(그림 4 참조).
- 2010년 2월 중 실업자는 1,16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4천 명(26.4%)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4.9%로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함.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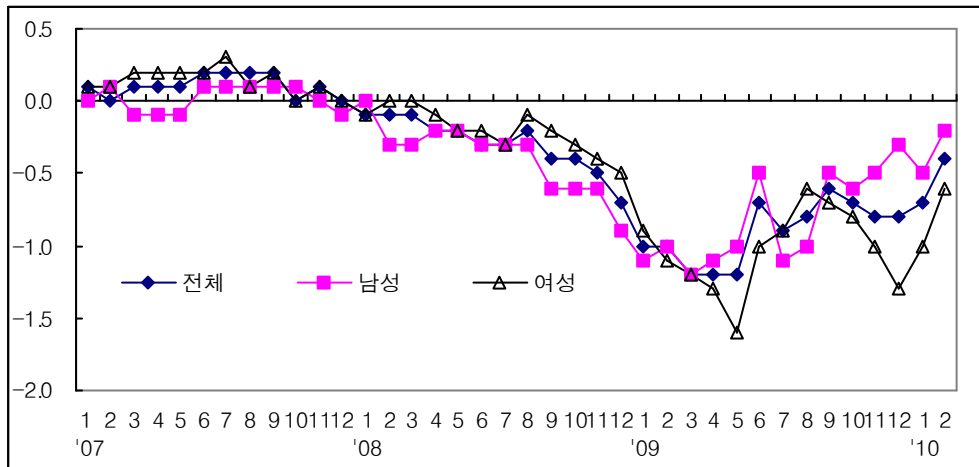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8		2009				2010	
	4/4분기	1/4분기	2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경제활동인구	24,394 (0.3)	23,812 (-0.2)	23,667 (-0.2)	24,680 (0.2)	24,637 (0.5)	24,448 (0.2)	24,082 (1.6)	24,035 (1.6)
참가율	61.3	59.7	59.3	61.7	61.3	60.7	59.6	59.5
취업자	23,636 (0.3)	22,904 (-0.6)	22,742 (-0.6)	23,737 (-0.6)	23,751 (0.0)	23,631 (0.0)	22,865 (0.0)	22,867 (0.5)
고용률	59.4	57.4	57.0	59.3	59.1	58.7	56.6	56.6
실업자	757	908	924	943	886	817	1,216	1,169
실업률	3.1	3.8	3.9	3.8	3.6	3.3	5.0	4.9
비경제활동인구	15,373 (2.5)	16,088 (3.3)	16,233 (3.2)	15,347 (3.0)	15,528 (2.5)	15,829 (3.0)	16,305 (0.9)	16,384 (0.9)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2010년 2월 고용동향』, 2010. 3.

[그림 3] 성별 고용률 증감추이

(단위: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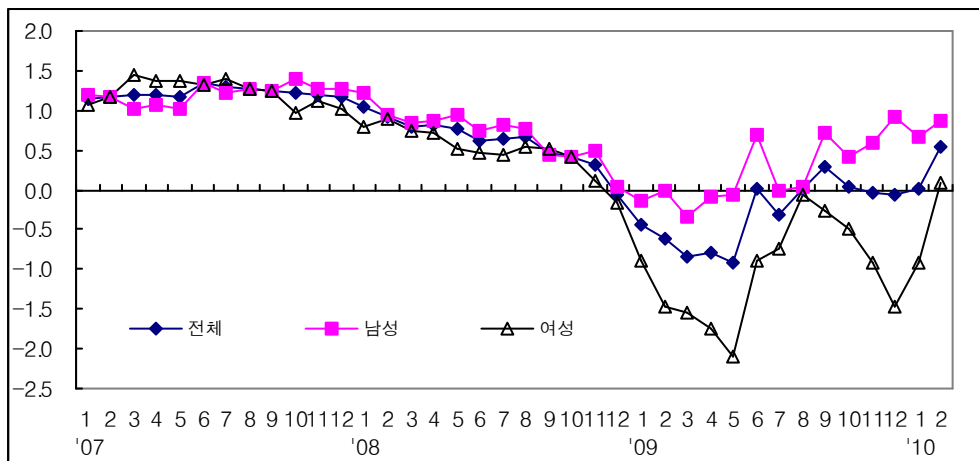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남성 실업자는 70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1천 명(16.7%)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45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3천 명(45.1%)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5.0%로 전년동월대비 0.6%p, 여성은 4.7%로 전년동월대비 1.4%p 상승하였음.

○ 2010년 2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38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1천 명(0.9%) 증가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57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천 명(0.9%)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80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2천 명(0.9%)이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25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4천 명(49.8%) 증가한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56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9천 명(-10.8%),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034천 명으로 84천 명(-2.0%) 감소함.

◆ 제조업 취업자 증가, 내수산업 감소세 지속

- 2010년 2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11천 명, 2.8%), 전기·운수·통신·금융업(129천 명, 4.8%), 제조업(45천 명, 1.2%)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43천 명, -10.7%), 건설업(-87천 명, -5.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0천 명, -0.5%) 에서는 감소함.
-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제조업 취업자가 증가추세로 반전함(그림 5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8		2009				2010	
	4/4분기	1/4분기	2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전 산업	23,636 (0.3)	22,904 (-0.6)	22,742 (-0.6)	23,737 (-0.6)	23,751 (0.0)	23,631 (0.0)	22,865 (0.0)	22,867 (0.5)
농림어업	1,695 (0.5)	1,398 (1.0)	1,340 (0.5)	1,817 (-1.3)	1,799 (-1.4)	1,579 (-6.9)	1,123 (-12.4)	1,197 (-10.7)
제조업	3,910 (-2.6)	3,850 (-4.1)	3,842 (-4.4)	3,843 (-3.8)	3,791 (-3.6)	3,862 (-1.2)	3,924 (0.8)	3,886 (1.2)
건설업	1,811 (-2.2)	1,705 (-2.5)	1,681 (-1.0)	1,772 (-6.0)	1,699 (-5.7)	1,704 (-5.9)	1,617 (-4.8)	1,595 (-5.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657 (-1.1)	5,589 (-2.0)	5,569 (-2.0)	5,534 (-2.4)	5,511 (-2.8)	5,511 (-2.6)	5,602 (-0.9)	5,539 (-0.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7,787 (4.0)	7,618 (3.2)	7,586 (3.3)	7,984 (4.5)	8,175 (5.9)	8,149 (4.6)	7,737 (2.3)	7,797 (2.8)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754 (-1.9)	2,722 (-2.6)	2,704 (-2.7)	2,765 (-1.8)	2,753 (-0.9)	2,802 (1.8)	2,839 (3.3)	2,833 (4.8)

주 :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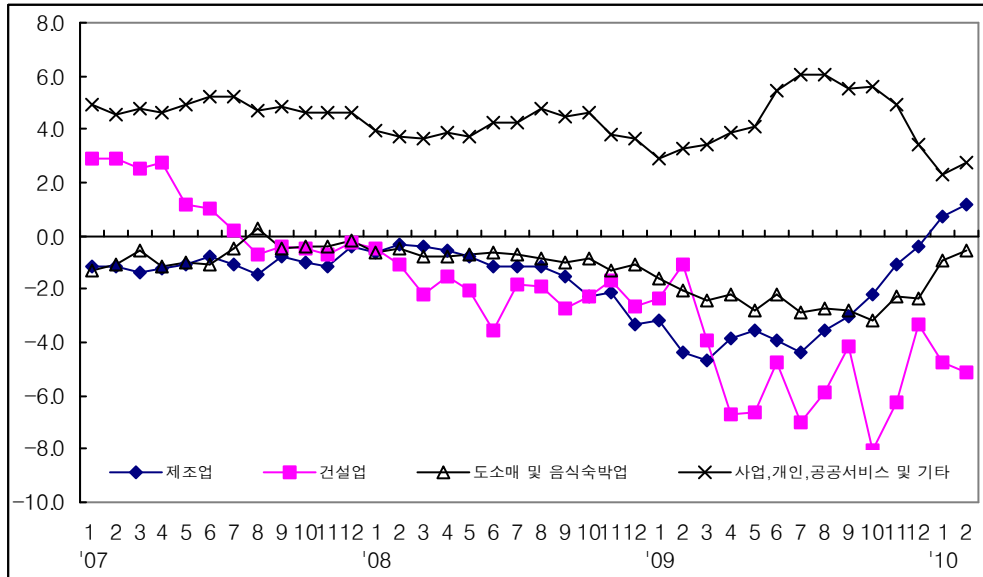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함.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 『2010년 2월 고용동향』, 2010. 3.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비임금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취업자 감소추세 지속

- 2010년 2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58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5천 명(-3.0%)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6,28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9천 명(2.1%)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9,786천 명으로 593천 명(6.4%)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4,838천 명으로 24천 명(-0.5%), 일용근로자는 1,657천 명으로 239천 명(-12.6%) 감소함.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용근로자의 감소세가 지속됨(그림 6 참조).
 - 2009년 이후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의 감소를 중심으로 비임금근로자 감소 추세가 지속됨(그림 6 참조).
 - 자영업자 및 임시직의 취업자 감소가 둔화된 경향을 보임.
- 2010년 2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8,05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881천 명(153.8%)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4,169천 명으로 4,913천 명(-25.7%) 감소함.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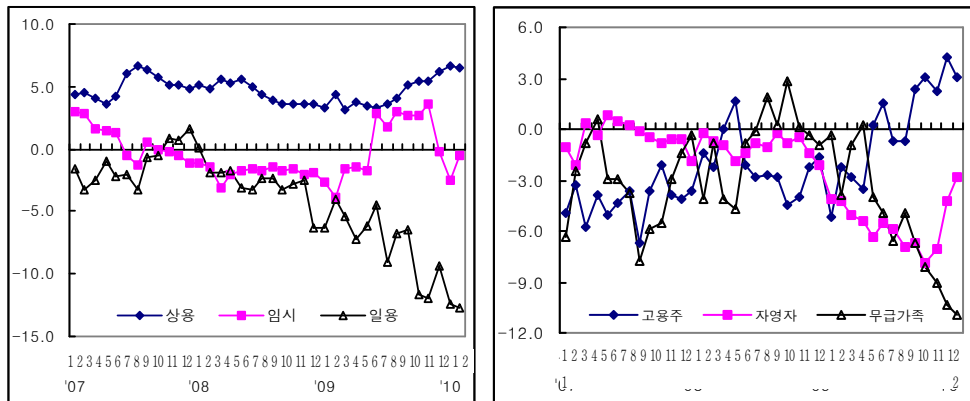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8		2009				2010	
	4/4분기	1/4분기	2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전 체	23,636 (0.3)	22,904 (-0.6)	22,742 (-0.6)	23,737 (-0.6)	23,751 (0.0)	23,631 (0.0)	22,865 (0.0)	22,867 (0.5)
비임금근로자	7,343 (-1.1)	6,877 (-3.1)	6,789 (-3.7)	7,212 (-4.1)	7,166 (-4.7)	6,952 (-5.3)	6,569 (-3.5)	6,585 (-3.0)
자영업주	5,939 (-1.6)	5,620 (-3.4)	5,558 (-4.4)	5,787 (-4.7)	5,776 (-4.6)	5,600 (-4.7)	5,475 (-2.0)	5,489 (-1.3)
무급가족종사자	1,404 (0.9)	1,258 (-1.8)	1,231 (-0.3)	1,425 (-1.6)	1,390 (-5.5)	1,292 (-7.9)	1,094 (-10.4)	1,097 (-10.9)
임금근로자	16,294 (0.9)	16,027 (0.5)	15,953 (0.7)	16,525 (1.1)	16,585 (2.2)	16,678 (2.4)	16,297 (1.5)	16,282 (2.1)
상용근로자	9,106 (3.6)	9,157 (3.6)	9,194 (4.4)	9,294 (3.5)	9,487 (4.2)	9,621 (5.7)	9,712 (6.7)	9,786 (6.4)
임시근로자	5,062 (-1.8)	4,928 (-2.7)	4,862 (-3.8)	5,136 (-0.1)	5,174 (2.5)	5,167 (2.1)	4,860 (-2.4)	4,838 (-0.5)
일용근로자	2,126 (-3.8)	1,942 (-5.3)	1,897 (-4.1)	2,094 (-6.0)	1,924 (-7.5)	1,891 (-11.1)	1,725 (-12.4)	1,657 (-12.6)
36시간 미만	2,833 (11.1)	3,092 (11.6)	3,175 (13.1)	2,997 (-1.9)	3,390 (-33.9)	2,961 (4.5)	3,202 (1.8)	8,056 (153.8)
36시간 이상	20,552 (-1.2)	19,351 (-2.7)	19,082 (-3.1)	20,480 (-3.0)	19,894 (9.7)	20,404 (-0.7)	19,030 (-0.1)	14,169 (-25.7)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2010년 2월 고용동향』, 2010. 3.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 17시간 미만 취업자는 1,33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3천 명(32%) 증가하였고, 18~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72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58천 명(210.4%) 증가함.
- 18시간 미만 취업자 1,331천 명 중에서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추가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17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 명(-0.4%) 감소하였음.

◆ 전 연령 모두 실업자 증가

- 2010년 2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하였고, 특히 60세 이상의 증가가 두드러짐.
 - 2010년 2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20대(9.8%, 1.3%p), 30대(4.0%, 0.2%p), 40대(3.0%, 0.5%p), 50대(3.2%, 0.6%p), 60세 이상(6.0%, 4.0%p)에서 증가함.
 - 2010년 2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중 60세 이상은 14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8천 명(209.9%)이 증가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4.9%, 2.0%p), 고졸(5.1%, 0.6%p), 대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8	2009					2010	
	4/4분기	1/4분기	2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전 체	757(3.1)	908(3.8)	924(3.9)	943(3.8)	886(3.6)	817(3.3)	1,216(5.0)	1,169(4.9)
15~29세	300(7.0)	368(8.6)	372(8.7)	351(8.0)	350(8.1)	320(7.6)	411(9.3)	433(10.0)
30~39세	202(3.3)	227(3.7)	229(3.8)	237(3.9)	213(3.5)	202(3.3)	232(3.9)	242(4.0)
40~49세	134(2.0)	166(2.5)	163(2.5)	176(2.6)	160(2.4)	151(2.3)	188(2.9)	198(3.0)
50~59세	93(2.1)	108(2.4)	113(2.6)	127(2.7)	118(2.5)	104(2.2)	172(3.7)	151(3.2)
60세 이상	29(1.1)	39(1.6)	47(2.0)	53(1.9)	46(1.6)	41(1.5)	216(8.8)	145(6.0)
중졸 이하	111(2.1)	143(2.9)	139(2.9)	141(2.6)	116(2.2)	119(2.3)	336(7.1)	225(4.9)
고 졸	383(3.8)	438(4.5)	442(4.5)	459(4.6)	460(4.6)	393(4.0)	525(5.2)	504(5.1)
대졸 이상	263(2.9)	327(3.6)	344(3.8)	343(3.7)	310(3.3)	306(3.2)	355(3.8)	440(4.6)
취업무경험실업자	37	47	50	38	37	36	70	60
취업유경험실업자	721	861	874	905	849	781	1,146	1,109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 『2010년 2월 고용동향』, 2010. 3.

줄 이상(4.6%, 0.8%p) 모두 상승하였음.

- 2010년 2월 중 전체 실업자 1,169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6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 명,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1,109천 명으로 235천 명 증가했음.

(정성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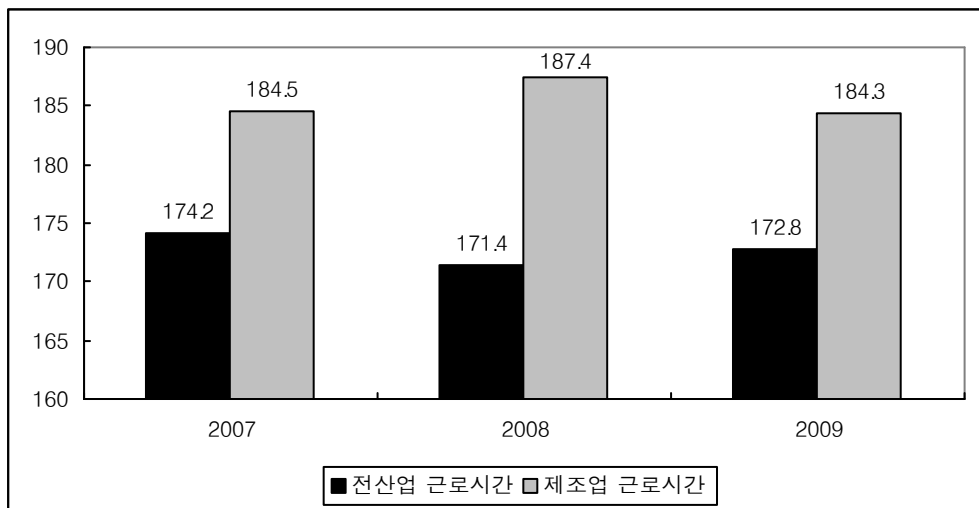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09년 근로시간, 전년보다 소폭 증가

- 2009년 근로시간, 전년대비 0.8% 증가
 - 2009년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2.8시간을 기록하여 전년(171.4시간)에 비해 0.8% 증가
 - 주당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주당 39.8시간 기록

[그림 7]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월)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호.

〈표 6〉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월, %)

	2008	2009				
		2009. 1/4	2009. 2/4	2009. 3/4	2009. 4/4	
전 산업	171.4 (-1.6)	172.8 (0.8)	166.2 (-2.6)	172.6 (1.4)	176.9 (3.0)	175.4 (1.4)
제조업	187.4 (1.6)	184.3 (-1.7)	174.9 (-6.6)	188.9 (0.7)	185.1 (-0.2)	188.4 (-0.6)
건설업	155.2 (-4.2)	156.9 (1.1)	155.3 (1.2)	153.9 (0.6)	165.8 (6.4)	152.5 (-3.7)
도매 및 소매업	167.1 (-1.4)	172.0 (2.9)	165.5 (0.2)	170.6 (3.3)	176.6 (5.1)	175.2 (2.9)
음식숙박업	172.8 (-2.6)	171.3 (-0.9)	166.6 (0.1)	169.5 (-3.3)	175.6 (0.7)	173.3 (-0.9)
운수업	175.0 (-6.1)	179.5 (2.6)	171.0 (-2.4)	180.7 (-0.3)	184.0 (8.6)	182.1 (4.7)
통신업	163.0 (-2.5)	162.8 (-0.1)	160.8 (-0.7)	166.0 (4.1)	164.0 (-0.2)	160.5 (-3.5)
금융 및 보험업	160.1 (-0.4)	158.7 (-0.9)	157.6 (-1.1)	160.9 (3.1)	159.0 (-1.1)	157.3 (-4.3)
부동산 및 임대업	184.8 (-7.8)	186.4 (0.9)	180.8 (-1.6)	186.6 (1.6)	188.6 (2.7)	189.6 (0.6)
사업서비스업	169.2 (3.2)	168.2 (-0.6)	164.3 (-2.7)	169.3 (1.9)	166.6 (-2.3)	172.4 (0.6)
교육서비스업	141.7 (0.8)	145.9 (3.0)	151.5 (9.5)	145.4 (8.3)	146.9 (-1.5)	139.6 (-3.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67.0 (-2.6)	165.9 (-0.7)	162.3 (-1.6)	167.5 (1.0)	166.1 (-1.5)	167.5 (-0.5)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56.2 (0.5)	155.6 (-0.4)	147.3 (-1.9)	156.9 (2.9)	158.6 (-4.5)	159.6 (2.2)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77.2 (-1.4)	176.3 (-0.5)	171.1 (-3.4)	178.5 (0.7)	178.5 (1.1)	177.1 (-0.4)

주: 1) 전체 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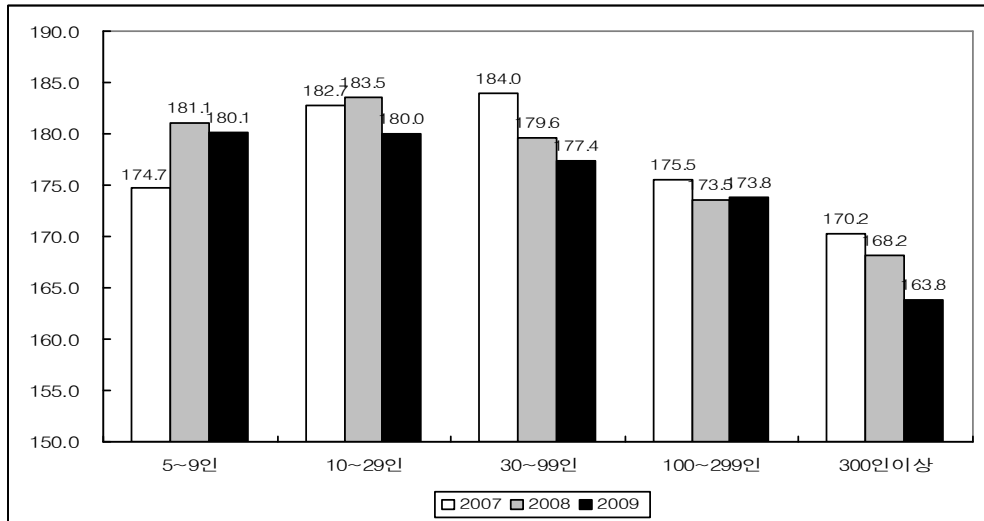
– 2009년 제조업 근로시간은 월평균 184.3시간으로 전년의 187.4시간보다 1.7% 하락함.

◆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에서 근로시간 증가

-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은 증가한 반면 제조업, 음식숙박업은 감소
 - 2009년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교육서비스업 3.0%, 도소매업 2.9% 등이 증가세를 주도했으며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은 -1.7%, -0.9%를 기록하여 낮은 증가세를 기록
 - 2009년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 및 임대업이 186.4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이어 제조업 184.3시간, 운수업 179.5시간 등의 순으로 길게 나타남.

[그림 8]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월)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호.

◆ 100~299인 규모에서만 근로시간 증가

- 2009년 규모별 근로시간은 100~299인 규모를 제외하고 모든 규모에서 감소
 - 2009년 규모별 근로시간 증가율을 보면, 5~9인에서 0.6% 감소하였고 이 밖에 10~29인 1.9% 감소, 30~99인 1.2% 감소하였으며, 300인 이상에서는 2.6% 감소한 반면 100~299인은 0.2% 증가함.

(강승복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동향

◆ 노사분규 발생 추이

- 201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현재까지 노사분규 누적 발생건수는 6건, 근로손실일수(2010년 3월 24일 기준)는 63,915일로 집계됨.

〈표 7〉 노사분규 발생 추이

(단위: 개소, %)

	2010. 1. 1~2010. 3. 31	전년동기	증 감(%)
노사분규 발생건수	6	10	△40.0
종 결	4	8	-
진 행	2(4)	2(2)	()는 전년도 이월
근로손실일수	63,915	21,944	191.3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3월 24일 기준임.
 자료: 노동부.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노동계 추천 위원 변경

- 노동부장관은 3월 26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김주영 위원(한국노총 부위원장) 과 이경우 위원(법무법인 한울 대표)이 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이들을 해촉하고 대신 민주노총이 추천한 강승철(민주노총 사무총장)과 박조수(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함.
-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근면위 참여와 관련하여 노사정 합의에 기반하여 도입된 개정 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노·사·공익 등 이해 당사자의 참여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노동계의 양측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경영계는 위원 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 현직 임원과 노동문제 관련 전문가의 비율 (3:2)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 노동부, 교원노조 단체협약 분석

- 노동부는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6개 지방교육청(부산·광주·경기·전남·전북·제주)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총 453개 조항 중에 152개 조항(33.5%)이 위법·부당·비교섭 등 단체협약으로서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 불합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립형 사립고 추천금지, ▲연구·시범학교 응모 시 교원의 동의, ▲교육청과 노조간 쌍방동수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사립학교 내 재단 전보인사시 교사 본인의 동의, ▲사립학교 통·폐합, 학급감축 등으로 과 원교사 발생시 공립교사로 채용, ▲노조 주관 행사에 행·재정적 지원 등
- 노동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 명령하고 불이행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할 예정이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단체교섭시 교섭의제에서 제외되도록 교섭지도를 강화하고, 교섭 관계자에 대한 교섭역량 제고 교육 등 지원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민주노총, 2010년 임금요구안

- 2011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 5,180원, 한 달 1,082,620원 요구
 - 현행 최저임금 4,110원 대비 26.0% 인상
 - 2009년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2,166,477원)의 38.6%에서 절반인 50%로 상승 요구(주 40시간 기준)
 - 2009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월평균 소득 3,888,647원에 비하면 27.8% 수준임(통계청, 2010년 2월).
- 격차 해소
 - 비정규직 임금: 29.8%(357,500원) 인상 요구(정규직의 55%)
 - 기업 규모별 격차 해소: 대규모사업장과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산업·사업장별 임금인상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정립해 노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연대임금 모색(예컨대, 산별교섭으로 임금인상분의 일정액을 ‘고용연대 기금’으로 적립해 노사 공동사용 요구, 대규모사업장의 경우 당기순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협력업체 발전기금으로 출연해 격차해소)
- 정규직 임금: 9.2% 인상 요구(표준생계비 충족률 83.5%)
 - 표준생계비 482만 5,934원(3.9인 가구 기준), 조합원 임금평균 368만 9,939원
 - ※ 한국노총 임금 요구안: 9.5% (비정규직 20.2%, 최저임금 5,152원 인상) → 통계 반영해 최임 5,180원으로 조정
 - ※ 주요 경제지표: 2010년 물가인상률 전망 3%, 경제성장률 5%, 노동소득분배율 개선 2.2%

◆ 한국경영자총협회, 2010년 임금인상률 동결 제시

- 임금인상 여력이 있는 기업은 임금동결에 따른 재원을 신규채용 확대에 투입하고, 대기업의 경우 확보된 재원을 하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에 지원하는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정함.
 - 임금동결의 배경: 지난해 한국 기업 전반이 마이너스 성장 경험, 해외경제 불안요

인 등의 경제불확실성 상존, 생산성과 임금간 불균형이 누적되는 상황하에서 기업의 임금인상 여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임.

- 임금동결의 목적과 취지: 국가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70% 수준 달성), 청년실업 문제 해결, 임금안정 기조유지를 통해 향후 10년간 매년 3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임금동결에 따른 권고사항: 임금동결을 통한 재원을 신규채용과 투자에 투입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와 국가고용률 제고에 기여, 대기업은 임금동결에 따른 재원을 하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에 지원, 연초 임금인상은 동결하되 연말 기업과 개인의 성과를 감안하여 인센티브 지급

◆ 대한항공, 조종사 필수유지업무 유지율 결정

○ 서울지방노동위원회(3월 19일), 대한항공조종사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에 대한 결정

- 비행기 운항계획이 변경되더라도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내륙노선 50%의 운항률이 유지되도록 조종사(기장·부기장)의 필수인원수를 정해야 함.
- 서울지노위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해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노조의 파업권을 침해한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법률자문 등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검토

◆ KBS 계약직지부, 연봉계약직 고용안정 합의

○ 지난해 사측이 연봉계약직 420명 중 248명을 자회사(92명은 무기계약직, 156명은 정규직)로 전환하고 나머지 172명을 계약해지하자, 노조 반발

〈표 8〉 대한항공 조종사 필수유지업무 필요인원 산정례

(단위: 명)

기종	노선	평상시		운항률	쟁의행위시		
		운항계획시간	가용인원		운항계획시간	유지운영수준	필요인원
B744	국제선	18,878	792	80%	15,102	80%	634
B737	국제선	4,410	382	80%	3,528	69.7	267
	제주선	1,538		70%	1,077		
	내륙선	2,318		50%	1,159		
	계	8,266			5,764		

자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3.16(화) 노사는 『KBS 연봉계약직 고용안정』에 대해 합의
 - ※ 노사합의 주요내용: 조합원 113명 중 69명은 무기계약으로 전환(23명은 기 전환, 31명은 조속한 시일내, 15명은 '10.6.30까지), 자회사 취업을 희망하는 2명은 '10.3.31까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 나머지 42명은 해고무효소송 1심 판결에 따름.
- 그간, 2009년 6월 17일 사측이 연봉계약직(기간제 비정규직) 420명 정리계획을 발표하자, 6월 24일 연봉계약직 근로자 113명이 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를 설립
 - 2009년 9월 2일~11월 12일까지 노조는 단협체결을 위해 15차례(본교섭 6회) 교섭 하였으나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및 계약해지사 복직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 없자 11월 12일 교섭중단 및 총력투쟁 선언
 - 2009년 11월 13일부터 노조는 조합원 5~10여 명이 계약해지사 복직 및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며 KBS본관 로비 점거농성 등 반발

◆ SBS노조, 파업찬반투표 가결

- 노조는 4월 1일까지 임단협 관련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4월 2일 오전 상무집행위원회를 개최, 전면파업 돌입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수립함.
 - 3월 31일 노사는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노사협의회 안건만 논의하고 종료, 4월 1일(16:00) 임단협 실무교섭 예정
 - ※ 노·사 주요쟁점: 노측은 기본급 4.7% 인상, 콘텐츠 운용위원회 신설, 본부장·실장·총괄프로듀서 중간평가제 강화, 임금·단협 동시교섭 요구. 이에 사측은 기본급 동결 및 상여금 기존 900%에서 700%로 200% 삭감(900%→700%), 콘텐츠 운용위원회 신설 및 중간평가제 강화에 대해서는 인사·경영권 침해 이유로 수용불가, 임·단협 분리교섭 등을 주장
- 노조, 대주주 견제를 위한 콘텐츠 운영위원회 신설과 본부장 등 간부에 대한 중간평가제 강화는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
 - 이유: 대주주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위치에서 회사의 주요 결정을 좌우, 임원과 간부들이 시청자들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오로지 대주주의 눈치만 보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실효적인 중간평가 제도 도입 필요
 - 사측은 콘텐츠 운영위원회 신설 및 중간평가제 강화 요구는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용불가 입장 견지
- 그간, 노조는 17차례 임단협 교섭(2009년 10월 21일~2010년 1월 6일, 상견례·본교섭

- 6회 및 실무교섭 11회)이 진전 없자 2010년 1월 20일 서울지노위에 조정신청
 - 2010년 2월 18일, 서울지노위 조정안을 노조가 거부하여 조정불성립
 - ※ 서울지노위 조정안: 기본급 동결, 상여금 현행 유지, 기타 사항 추후 협의
 - 2010년 3월 22일~3월 29일: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87.5% 찬성 가결(재적조합원 1,068명 중 1,029명 투표(96.3%), 찬성 935명)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정규직·비정규직노조 연대투쟁 중단

- 3월 31일 현대차 전주공장 정규직노조(3,527명)는 3월초부터 협력업체 잉여인력 18명의 고용보장을 위해 비정규직노조(187명)와 연대투쟁해 왔으나, 3월 24일 18명 전원이 희망퇴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비정규직 해고 분쇄 투쟁 중단을 선언함.
- 그간, 2010년 1월 사측은 금융위기 이후 판매량 변동에 따라 관광버스는 감차(1일 18대 → 12대), 대형트럭은 증차(1일 35대 → 40대)하는 생산물량 조정 추진
 - 3월 3일부터 현대차 전주공장 정규직노조(3,527명)는 비정규직노조(187명)와 연대하여 원청(현대차)의 생산물량 조정에 따른 버스부 협력업체 잉여인력 18명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간헐적 연장·휴일근로거부 및 집회 등 계속
 - ※ 협력업체 잉여인력 18명: 한신기업 6명, 주성기업 8명, 대성기업 2명, 현우기업 2명
 - 3월 9일 노사는 버스부 정규직 인력 64명에 대해서는 배치전환에 합의했으나 버스부 협력업체 잉여인력 18명에 대해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함.
 - 3월 22일~3월 24일 희망퇴직 모집결과, 협력업체 잉여인력 18명 전원 희망퇴직 신청(3월 24일 퇴직처리 완료, 희망퇴직 조건: 퇴직위로금: 1~2개월분 임금)

◆ 한진중공업, 울산조선소 전 직원 전환배치 추진

- 2월 26일 한진중공업 노사는 인위적 구조조정 중단에 합의하며 파업 철회 및 업무에 복귀했으나, 3월 17일 사측에서 울산조선소 임직원 200여 명 전원을 부산 영도조선소로 전환배치하겠다고 밝힘.
 - 또한 한진중공업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하청업체 10여 곳에 4월말 업계불황에 따른 물량감소로 울산조선소 작업 중단 예정통보 공문 발송
 - 이에 한진중공업 울산지회는 전환배치 조치가 조선소 매각을 위한 사전작업 및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

◆ 금호타이어, 임단협 주요사항에 의견접근

○ 3월 31일 15:50~4월 1일 03:30 노사는 제21차 임단협교섭을 개최, 임단협 주요사항에 대해 의견접근(비공개)

- 사측이 요구한 노조의 협약서(취업규칙 준수 등) 문구 중 정리해고(193명) 부분에 대해 사측은 『정리해고 유예』를,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각각 주장하여 교섭 중단

- 노조는 4월 1일 07:00경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07:30 노사교섭 재개를 통해 노사가 최종협상을 통해 절충점 조율

※ 노·사 주요쟁점: 노조는 임금 10% 삭감, 상여금 200% 반납, 해고예고통보(1,199명) 철회, 2010~12년 자연발생 결원에 한정 도급화를 주장. 이에 사측은 임금 15% 삭감 및 상여금 200% 삭감 수용시 1,006개 직무 단계적 도급화, 불수용시 임금 15% 삭감·193명 경영상 해고·1,006개 직무 일시 도급화

○ 그간, 노사는 경영위기에 따른 자구책 마련을 위해 2010년 2월 1일 임단협 교섭 개시

- 사측의 임금 및 구조조정안에 대해 노조는 2월 26일 노조안 제시, 3월 3일 전남지노위에 조정신청(3월 15일 조정종료)

- 3월 8일~3월 9일 파업 찬반투표 실시(72.3% 찬성 가결), 3월 24일 노조 수정안 제시

※ 노조 수정안 주요내용: 2.26 기본급 10% 삭감·상여금 100% 반납·인위적 구조조정 반대 → 3.24 기본급 10% 삭감·상여금 200% 반납·해고예고 통보(1,199명) 철회·도급화는 2010~12년 자연발생 결원으로 한정

- 3월 29일 사측은 정리해고통보자(193명)를 대상으로 2차 희망퇴직 모집 공고

- 3월 30일~3월 31일 사측은 정리해고대상자 193명 전원에 대해 자택대기 발령 및 질서유지 등 이유로 회사 출입금지 조치

※ 해고예고 통보자 1,199명(정리해고 193+도급화 1,006) 중 도급화 대상자(1,006명)에 대해서는 도급사 미선정 이유로 2개월 정도 해고 유보 예정 **KLI**

(반정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